



10년이 지나도...그리운 이름 '신·해·철'  
주옥같은 곡 만난다

지역 예술인 김거봉, 광주서 음감회 27일 기타살롱 유앤미

'마왕', '고스트 스테이션', 록밴드 'N.EX.T'의 리더이자 '무한캐드' 멤버, 록·테크노·일렉트로니카 분야의 개척자...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고(故) 신해철의 이름을 떠올리면 스쳐 가는 이미지들이다. 생전 '그대에게', '일상속으로의 초대'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남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지역 예술인 김거봉이 '안녕 마왕! 10주기 음감회'를 오는 27일 오후 5시 기타살롱 유앤미(용봉동 우치로 110번길 12)에서 연다. 신해철의 음반을 사랑하는 후배 예술인 및 일반 시민들이 모여 그의 노래를 감상하는 자리다.

행사를 기획한 김거봉은 "생애 처음 샀던 음반이 넥스트 4집이었고, 생애 첫 공연 관람도 모노코롬 광주 무대일 정도로 신해철은 음악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며 "음악가이자 논객으로 살아온 '마왕'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방문해 함께 추억을 나눴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프론트맨이자 0세대 아이돌이었던 신해철이 46세라는 나이에 세상의 별이 된

점이 아쉽지만, 그가 추구했던 음악적 열정과 혼은 아직 노래 속에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김거봉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신해철 음반들과 생전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 스테이션'의 공식기 등을 보여줬다.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과 음악적 가치관에 신해철의 명반들이 많은 영감을 줬다는 증거들로 읽혔다. 김거봉은 지난 2022년 정규 1집 'Dance Dance Blues'을 발매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MBC FM '밤의 디스크쇼 신해철입니다' 대본 집인 '사랑의 날개는 너에게' 등 출간물과 2000년대 이후 음반, N.EX.T 활동 당시 발매했던 앨범 전편도 늘어났다. 수많은 소장품들을 보고 있느니 그의 팬심이 가능했다.

이번 행사는 음감회(음악 감상회)를 표방하는 만큼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곡을 자유롭게 선곡해 감상한다.

김거봉은 '절망에 관하여', '그대에게'를 비롯해 '매미의 꿈 Part5', 'The Ocean', '영원히' 등 대표적인 작품들을 언급하며 이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예약'했다. 저마다 자아-존재-삶-가족-사회

적 문제 등에 천착하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조붓한 감상실에 울려 퍼지는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김거봉은 "신해철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리풍의 날알 개수를 세고, 백 원짜리 옆 빗금을 썼던 추억들이 아련하다"며 "지역에도 그의 음악적 세계와 가치관을 좇았던 후배 뮤지션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함께 자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생전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에서 변했던 유행들을 언급하는 모습에서 팬덤으로서의 열정, 선배 음악가에 대한 선망, 후배로서의 추모와 트리뷰트(헌정) 의지 등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다.

한편 1988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 10대 가수상을 받은 신해철은 KBS 올해의 가요상, 1990년 골든디스크상 등을 수상했다. 미디 음악(컴퓨터 음악)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등 선구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탁월한 언변으로 자신의 철학, 소신을 밝혔던 소셜테이너였다.

10주기를 맞아 오는 26-27일에는 '마왕 10th : 고스트 스테이지' 헌정 콘서트도 인스파이어 아래사에서 예정돼 있다.

문의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빛고을 광주를 노래하다'

빛고을심포니·빛고을창작공연 내일 남구문화예술회관



'빛고을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빛고을심포니 오케스트라 제공)

'양산동 호수공원', '오월이 오면', '무등산 가는 길', '남광주시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8명 작곡가가 광주의 명소나 특색을 담은 작품들을 위촉·창작해 초연으로 선보인다.

빛고을심포니오케스트라와 빛고을창작공연이 '빛고을 광주를 노래하다'를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윤환나(소프라노), 문주리(메조소프라노), 나영오(테너) 및 손승범(바리톤)이 출연하며 지휘에 김영언.

이강 시에 신민지가 곡을 입힌 '5월의 청춘', 김철수 시를 최선이 곡화한 '오월이 오면'이 울려 퍼진다. 임원식의 시는 멜로디를 입고 곡 '무등산'으로 변했다. 강현우의 '남광주시장', 이항우의 '무등산 가는 길'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 외에도 5월을 모티브 삼은 김진선 작 '오월의

절레꽃', 박지영 작 '오월'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끝으로 각기 다른 성부를 지닌 네 명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사랑합니다'로 막을 내린다.

전남대 음악학과 및 경희대 대학원 등을 졸업한 강현우, 호신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성훈(빛고을창작공연 대표)이 작곡을 맡았다. 전남과 학과 교수인 김진선, 동 대학 음악과 초빙교수인 박지영 및 호신대 작곡전공 등을 졸업한 신민지도 저마다 초연 곡들을 선보인다.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항우, 동 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CCM '참 아름답다'를 작곡한 최선의 노래도 무대에 오른다. 광주교회음악작곡가회 회장이자 전남대 음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황성호의 곡도 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빛고을영무장농악단' 전국 경연 대통령상

51명 단원 출전 '광주 용봉농악'...올해 전주대사습놀이 대상도



최근 펼쳐진 제26회 김제 지평선 전국국악경연대회 장면. (빛고을영무장농악단 제공)

광주용봉농악보존회 빛고을영무장농악단(대표 장호준·농악단)이 최근 '제26회 김제 지평선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농악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51명 단원들이 출전해 '광주용봉농악'을 선보였으며 상금은 1000만원.

장호준 대표는 "연습공간이 부족해 공간을 대여했으며, 평평 아래 야외 공간에서 연습을 이어갈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단원들의 열정으로 일궈낸 성과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농악단체로서 최고의 영예를 갖게 된 듯해 보람차다. 앞으로도 농악단이 지역에 오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

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농악단은 광주시를 비롯해 영광, 고창, 장성, 함평 등의 영무장농악을 계승하는 전문 농악단체다. 북구를 거점으로 용봉 우도농악과 잡색탈춤, 마당밧기굿 등 지역 향토농악을 보존하는 한편 창작공연을 펼쳐 왔다.

이에 앞서 농악단은 지난 6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진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농악경연' 및 2022년 '제10회 부안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각각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림책 원화 보고 콘텐츠 즐기고

ACC '구르구르와...' 원화전

아시아 스토리를 토대로 창제작된 작품의 원화가 전시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원화전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 동물친구들과의 여정을 모티브로 진행된다. 또한 원화 이미지를 매개로 조형물, 드로잉, 체험 등을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전시실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구르구르와 세 친구의 모험' 원화전을 내년 7월 6일까지 진행중이다.

ACC 어린이도서관 책 놀이터 너나들이에서 열리는 전시는 재단이 펴낸 그림책 '세 친구'와 '개굴개굴 고래고래'의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이에 앞서 ACC는 아시아 스토리를 기반으로 어린이 공연을 창제작했으며, 재단은 그림책을 출간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의 민화 '세 친구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된 '세 친구'는 밤이 되면 숨어버리는 태양을 찾아 새끼 염소, 아기 양, 송아지가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다. 김혜원 작가가 글·그림에 참여했다.

박현민 작가의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베트남의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모티브로 한다. 개구리 구르구르가 가뭄으로 힘들어하던 코끼리, 호랑이, 사슴 친구들과 함께 비를 찾아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소리, 소중함에 초점을 맞췄으며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기형 팀장은 "이번 전시는 그림책 원화를 모티브로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동물과 함께 하는 상상의 여정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아시아 스토리를 토대로 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김혜원 작 '세 친구'



박현민 작 '개굴개굴고래고래'

밝혔다.

무료 관람,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